

화순군, '민원서비스 실명제'로 책임행정 강화

'민원창구 전용 명함' 제작...공직자 명패 교체

"민원서비스에 책임 지겠다는 사명감·의지 담겨"

화순군이 민원 행정의 책임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 서비스 실명제'를 추진한다.

최근 화순군 행복민원과 민원창구 직원들은 민원인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잘 볼 수 있게 명패의 사이즈를 키우고 창구 전면에 비치했다.

군은 전 직원 명찰 패용에 이어 민원실 명패 교체와 전면 비치로 통해 '민원서비스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명패 크기가 작고 업무용 책상에 비치해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해당 직원의 명패를 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민원들은 상담과 서류 작성 등을 바쁘게 처리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군은 명패 교체와 함께 '민원창구 전용 명함'을 제작해 민원창구에 비치했다.

꼭 필요한 민원창구 전화번호를 명함 형태로 제작, 비치해 궁금한 사항은 교환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전화 문의할 수 있게 돼 민원 문의가 많이 편해졌다.

이는 군민을 섬기고 군민과 소통을 원하는 구북구 화순군수의 뜻을 반영한 민원실의 개선택이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명패는 직원 자신이 제공한 민원서비스에 책임을 지겠다는 사명감과 의지가 담긴 변화"라며 "민원창구 명함으로 민원 업무의 편리함을 더했고 앞으로 군민이 감동하실 수 있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성군, 내년 지적재조사 대상지 선정 수요조사

장성군이 오는 19일까지 '2023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한다.

8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이 지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새롭게 측량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것이 목표다.

장성군은 각 읍·면으로부터 예상 대상지를 신청 받은 후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와 사업시행 용이성을 검토해 사업지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마을이장과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강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대상지 선정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소유 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앞서 장성군은 올해 황룡 와룡지구와 진원 울곡지구, 삼계 부성지구 지적 재조사를 완료했다. 삼서 소룡지구와 북이 모현2지구 등은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 구축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는 디지털 지적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일조하는 만큼 이번 대상지 수요조사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나주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상거래 질서 확립·소비자 보호

내달 2일까지 형식승인 받은 10t미만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대상

나주시는 9일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계량기 검사는 상거래용 저울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검사로 2년 주기로 시행된다.

정기검사 대상인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정육점, 유통점, 쌀집, 철물점, 귀금속판매업소 등에서 거래·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가 해당된다.

시는 9일 나주목사교을시장과 10일 영산포 풍물시장을 시작으로 내달 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검사를 실시한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장소 및 세부 일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확인·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마트·식당 등 검사대상 계량기 소유주들은 일정을 확인해 수검 의무를 준수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계량기 정기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정기검사 면제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된다.

나주=송준표 기자

담양군,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담양군이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특히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반려견의 소유자,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반려견의 상태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축산원예과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버스 정류소 금연 구역 알림 표지판 일제 정비



곡성군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235개소 버스 정류소를 대상으로 금연 구역 알림 표지판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 일제 정비를 통해 곡성군은 기존에 부착

되어 있던 노후된 금연 구역 알림 표지판을 새것으로 교체했다. 또한 버스 정류소 신설 및 교체로 인해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새롭게 표지판을 부착했다.

이번 정비는 주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진행했다. 곡성군은 금연 안내 표지판 설치로 금연 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곡성군은 금연 알림판 외에도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흡연자들을 위해서는 금연 클리닉 운영하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 흡연 예방 인형극 등을 운영한다.

곡성=양해영 기자

구례군,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구례군은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10일간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제공하여 근로능력을 재생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구례군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및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자는 참여자격 요건에 충족된다.

취업취약계층은 우선 선발될 수 있고,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합당한 점수의 상위 점수순서에 의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취업취약계층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등이 해당되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가점이 인정된다.

2019년 이후로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한 경우 1년동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도 선발에서 제외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